

### 7월의 기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나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  
**(잠언 29장 25절-26절)**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조용기 총재목사님께서 2013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3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4.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DCEM 성회 안내**

2013년 7월 9일 - 싱가포르 시티하베스트 교회,  
2013년 7월 10일 - 인도네시아 (반동)  
2013년 7월 24 ~ 25일 - 스웨덴 (웁살라)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순복음분당교회,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양숙 김양호 김정환 김태승 나인규 오현주 원소선 정경자 정낙숙 조종숙목사님(순복음정릉교회) 최인철 함석숙 한태성 Esther Han Maxwell Arhin 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난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의 돛대는 항해할 때 강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제일 단단한 나무를 씁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돛대가 될 나무를 선정 해놓고 난 다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베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데 노출되도록 만듭니다. 나무가 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라면 굉장히 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어 돛대를 만들기 때문에 바다에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돛대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가정과 사업의 문제, 가난과 질병의 문제, 우리 몸의 연약한 것, 능욕, 욕됨, 박해, 곤고 등이 다가와서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의 원수들은 결국 우리를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와도 꺾이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의 군대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해진다는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인 나를 가장 어려운 중국 내지로 보내어 이렇게 큰 성공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반면 강하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약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강하신 하나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쉬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은 더 위대한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이 임하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761-6142 / dcem@davidcho.com

# 2013 총재 조용기 목사 상반기 해외성회



**1. 일본 2013 동북 치유대성회**  
‘조용기 목사 초청 2013 동북 치유대성회’가 2월 6일 일본 센다이국제센터에서 개최됐다. 동일본 대지진 2주년을 앞두고 DCEM이 주관하고 일본순복음교단이 주최한 이번 성회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일본인들의 회복을 위해 ‘주께 돌아오는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도회는 일본 전역의 순복음교인들과 우리교회 선교위원회, 제자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자들과 함께 일본의 회개와 영적 각성, 부흥을 눈물로 부르짖었다.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기도회에서 2부 주강사로 나선 조용기 목사는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좋은 신 하나님’을 강조했다. 통역은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가 맡았다. 조용기 목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의 신앙은 절대적인 믿음과 긍정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신앙고백을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이어 “우리는 좋은 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마음에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 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1부 기도회에서는 쓰나미 피해지역 목회자인 오토모 유기가즈 목사와 방사능 피해 지역 목회자인 스미요시 에이 지 목사가 일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들은 “이번 성회 주제는 ‘일본 지원’이 아니라 ‘일본이 주님께 돌아오자’”라며 “일본 교회가 오늘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도회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매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

**2. 미국 LA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성회**  
미국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감사 대축제가



4월 18일 저녁(현지시간) 한인 교민이 집중적으로 살고있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화려한 축제의 막이 올랐다. 이날 축제에는 스페인계 이민자들과 현지인들이 함께해 한인들과 기쁨을 나눴다.  
1903년 하와이 호놀룰루 사탕수수밭에서 대한민국 선조들이 신앙과 기도, 피와 땀, 눈물로 시작한 이민의 역사가 올해로 110년을 맞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기총 세계총회가 조용기 목사를 초청해 영적대각성 일일부흥성회를 비롯해 다채로운 성회와 행사를 4일간 진행했다. 첫째 날 참석자 전원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등단한 조용기 목사는 “오늘 같은 느낌은 처음이다. 보통 말씀을 전하고 신유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성령께서 병을 먼저 고치라고 말씀하셨다”며 바로 병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조용기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교회를 세울 때 최대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며 꿈을 통해 이룩한 교회성장을 간증했다.

한편 이날 축제가 진행된 주님의 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는 1984년 LA 올림픽 복싱 경기장으로 사용했던 대형 체육관을 매입한 건물로 영화배우 실베스타 스티븐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록키>를 촬영했던 장소로도 유명하다. 지금은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인 최대 교회이다.

**3. 호주 생명의 강 컨퍼런스**  
1902년 생명의 사람 R.A. 토레이 신부가 호주 멜버른에서 인도한 집회는 생명의 바람을 일으켜 호주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게 했다. 그



리고 111년이 지난 2013년 5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생명의 강 컨퍼런스(River of Life Conference)’가 멜버른 교회를 다시 하나가 되게 했고 이곳이 생명의 도시가 될 것을 기대하게 했다. DCEM총재 조용기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을 전했다. 성경의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설명한 뒤 자신의 체험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간증했다. 이어 교회 부흥에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인간이 갖는 죽음과 가난,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제한 뒤 “불가능한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지라도 말씀에 기초해 소망과 믿음을 갖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조용기 목사는 “기적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믿음이란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부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설명한 조용기 목사는 자신이 앓았던 파킨슨 병에 대해 간증했다. 조용기 목사는 “의사들은 모두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나는 낫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 치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 환경과 싸워야 하고 절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는 신유기도를 한 후 기적을 선포했다. “오늘 목이 매우 아픈 사람이 고침 받았습니디. 누구신가요? 일어나보세요”라고 조용기 목사가 말하자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며 치유된 것을 간증했다. 간증은 생명의 강처럼 계속 이어졌다.

# 회개와 천국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첫 사람 아담의 반역으로 시작된 죄의 역사는 오랜 세월 동안 온 인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세력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므로 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기 위한 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의 새로운 조상인 ‘새 아담’이 되셔서 죄의 유전 없이 죄 없는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침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는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다른 노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 1.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길이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성령충만을 받으신 후,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고치고 바뀌 오늘 있다 없어질 안개 같으며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은 믿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율법의 자로 재보면 누구든지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믿음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기로 작정만 하면 누구든지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새사람이 되었으니 새사람에게 합당한 새로운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향기 나는 의복을 받아 입고, 하나님 앞에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 2.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고 변화되라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죄를 들여다보고 알기 위해서는 율법의 거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 주는 거울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이 거울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했으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데 있어서 십계명보다 더 나은 거울은 없다.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부족한 것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나는 죄도 없고 깨끗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거울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의 잘못이 당장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섯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살인은 꼭 칼을 들어 사람을 죽이고 총을 들어 쏘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로도 살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으니 말로라도 살인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은 순서대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십계명과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그것을 통해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늘 들여다보고 그것을 외우고 그 십계명에 어긋난 것은 회개하고 자복하여 그것을 극복하

려고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 3. 회개함으로써 겸손한 삶을 살라

겸손한 삶의 태도를 지닌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회개만이 아닙니다. 교만과 오만을 청산하기 위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남의 눈의 티는 보고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났고 다른 사람은 못났다고 하며, 만사에 남의 탓만 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은 버려야 됩니다. 늘 남 탓, 아내 탓, 자식 탓, 이웃 탓, 남을 탓하고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하고 대화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낮아져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항상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를 막는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병이 낫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이 회개이며, 신앙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반성이 회개이며, 신앙의 완성도 회개를 통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심판과 징죄만 있습니다. 세속에 속한 사람은 회개의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웃하고도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 조용기 목사 초청, CTS ‘뉴미디어 방송선교 비전선포 감사예배’ 개최

## “순수 복음을 감당해온 CTS”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14일(금)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CTS 뉴미디어 방송선교 비전선포 감사예배’를 열고, 올해 중점 사역으로 펼치는 ‘CTS 비전 153’을 소개했다. 감사예배에는 DCEM 조용기 총재목사와 운영이사 2백여 명이 초청됐다.

조용기 총재목사는 “CTS는 한

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서 그동안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순수복음방송의 사명을 잘 감당해왔다”면서 “CTS의 모든 필요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채워진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CTS가 제시한 발전 방안은 ▲대륙별 클라우드 서버 구축으로 순수복음방송의 지경 확장 ▲전

세계 기독교 콘텐츠를 통합하고 공유하는 크리스천 미디어 허브로의 도약이다.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교회 앱 무료 제작은 현재까지 2천6백여 교회 및 선교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클라우드를 통한 CTS의 비전이 상당부분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CTS는 초기 홍보기간을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늘어나 1만 교회까지 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TS가 제공하는 교회 앱은 스마트 기기에서 목회자 설교 등 기독교 콘텐츠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고, 교회 소식 전달은 물론 성도 간 교제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 빠르게 보급 중이다.

CTS의 ‘비전 153’은 ▲미디어 목회를 지원하는 1만 교회 앱 무료 제작 ▲침체된 교회학교 부흥과 전도를 위한 5천 교회학교 프

로그램 개설 ▲미디어 선교 발전과 한국교회 섬김 사업에 투자할 3백억원 특별후원금 모금을 뜻한다.

‘1만 교회 앱 무료 제작’은 전국민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시대에 맞춰, 클라우드 방식의 미디어 목회를 지원하는 것이다. CTS 감경철 회장은 “미디어 선교의 미래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이제 전파 송출만으로는 시청자를 만족시킬 수 없고, 영상선교에도 제약이 따른다. 클라우드는 인터넷이 연결되면 곧바로 저장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가 대세인 시대에 영상선교방식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CTS측은 “300억 특별후원금 모금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세계선교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우수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전파에 앞장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금요철야예배 통해 ‘DCEM 헌신예배’ 드려

##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꿈을 꾸자!”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담임 이태근 목사)는 지난 6월 14일 DCEM 헌신예배를 개최했다. 강사로 초청된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는 시편 23편 1절~6절의 말씀을 근거로 여의도순복음분당

교회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었다. 시가끼 장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꿈을 꾸어야 한다. 우리는 ‘꿈’이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가져야한다.”고 전했다.

시가끼 장로는 요엘 2장 28절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용기 총재 목사님께서 천막교회 시절 5명의 교인으로 시작하셨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와 같은 부흥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셨고, 그 결과로 현재 세계 곳곳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다”고 말하며, 본인 역시 30년전 초신자 시절 조용기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 세계선교를 나가겠다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와 꿈이 이루어져 현재 조목사님을 모시고 온 세계선교를 나가게 되었다고 간증하였다.

금요철야예배로 드러진 이날 예배에서 시가끼 장로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에 이어 ‘사랑하는 자여’와 ‘누군가 널 위하여’ 찬양을 인도하였고 조용기 총재목사의 해의 선교사역을 위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는 1.성령충만한 교회 2.영혼구원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 3.선교체계에 힘쓰는 교회 4.다음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를 2013년 교회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이태근 목사를 중심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정진하고 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꿈을 갖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료함을 얻게 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금요철야예배로 드러진 이날 예배에서 시가끼 장로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에 이어 ‘사랑하는 자여’와 ‘누군가 널 위하여’ 찬양을 인도하였고 조용기 총재목사의 해의 선교사역을 위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는 1.성령충만한 교회 2.영혼구원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 3.선교체계에 힘쓰는 교회 4.다음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를 2013년 교회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이태근 목사를 중심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정진하고 있다.